

슬기로운 취미생활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학대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처음 만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상대의 취미를 물어볼 때가 있었다. '나' 때는 그랬던 거 같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나 크고 작은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때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기도 하고, 본인 소개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좋아하거나 즐기는 취미활동을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거나 좀 더 그럴싸한 취미로 포장해야 할 때는 중국음식점의 자장면이나 짬뽕처럼 '독서', 아니면 '음악 감상' 등으로 일반화시키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순수함이 묻어있는 나만의 개성이요, 나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요즘처럼 다양하고 다원화된 최첨단 사회에서는 각자의 취미를 '이것이다. 저것이다.'로 쉽게 답할 수 없게 되었다. 나만의 개성을 한두 가지로 단순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취미(趣味)를 사전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취미, 오락, 여가, 기분전환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

pastime(패스타임)도 '시간을 보내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개개인에게 '무엇이다'로 규정짓는 취미 또는 이러한 활동이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남들에게 보기 위한 취미나 아니면 의무감에서 비롯된 여가활동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바이올린,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를 못해도,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회장을 가지 않더라도, 골프를 즐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들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휴일 오후 TV드라마를 감상하거나 달콤한 오수(午睡)를 즐기는 단순함도 나를 기쁘게 하는 일상이며 취미일 것이다. 또 가벼운 옷차림으로 해변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나름의 호사가 될 수 있음이다. 결국 무엇이든 지금의 내 삶에 기쁨과 위안만으로도 무(無) 취미가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보기도 한다.

필자에게도 특별한 취미는 없다. 그때 그때 유행에 기대거나 상황에 따라 몇몇 것들을 훑내 내기도 하고, 또 큰맘 먹고 시작한 일들은 채 3일 가기가 어렵다. '부지런함'이나 '끈기'라는 단어에 미안함이 들 정도다.

하지만 주위를 살피면 여가나 취미활동을 구체화 시키고 꾸준함으로 발전된 자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문화생활이라는 이름의 품격 있는 자존활동을 일컫는다.

맛집을 찾아 헤매거나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차원적 소비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자기존중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하는 본인만의 끊임없는 노력이다. 이러한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활력과 열정이 넘쳐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와 소관 부처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더하고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족함도 있고 각자의 선택의 폭이 좁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 즉 취미활동을 위한 개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유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나의 주체적 취미활동을 통해 오늘의 나는 내일의 새로운 나로 탈바꿈 할 수 있음이다. 훗날 개개인에게 드러나는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취미 생활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젊거나 늙었거나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 모두가 취미 활동을 맘껏 누리기를 소망한다. 이를 통해 삶의 긍정적 의미와 에너지가 생성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취미 부자가 되어보자. 오늘의 문화적 토양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자.

社說

'상속세' 때문에 동교동 사저 없앨 텐가

매각 멈추고 문화재 지정해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7일에는 광주·전남김대중재단과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지난 6일 '동교동은 사저인 장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교동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61년 입주해 2009년 서거 때까지 살았던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고스란히 스민 곳이다. 하지만 사저는 지난 2019년 6월 이회호 전 이사장 별세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형제에게 갈등의 대상이었다. 김홍업 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김홍걸 전 의원과 사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이회호 전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자'는 데에 양측이 합의하며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최근 김홍걸 전 의원이 거액의 상속세를 이유로 매각한 것이 알려지

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의 주장처럼 김 전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가 37년 간 머물렀던 사저는 군사정권의 암살 위협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끝내 지켜낸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산실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일부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고난과 희생, 인내와 저항 위에서 싹 틔운지를 알리는 장소라는 것도 동교동 사저가 가진 가치다. 더불어민주당과 동교동계 인사들이 최근 회동을 갖고 사저 회수 방안을 강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동교동 '김대중 사저'는 민주주의 유산으로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동교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흔이 깃든 곳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동교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이다. 김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저 매각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 정치권도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이회호 기념관으로 만들라'는 이회호 여사의 유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처럼 상속세가 '동교동'의 소멸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

'티메프 미정산' 사기행각 엄중히 다뤄야

남도장터 입점업체 7억 피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전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쇼핑몰 '남도장터' 30여 입점 업체가 7억 원 상당을 정산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남도장터가 영세 입점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금 선정산 정책을 펴온 덕에 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은 미정산금은 고스란히 남도장터의 운영손실금으로 남게 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가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으로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식품가공업체 등 31개 업체가 대금을 제때 정산받지 못했다. 전체 미정산액은 7억 3128만 원에 이른다. 티몬이 80.5%인 5억 8850만 원, 위메프가 19.5%인 1억 4277만 원이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미정산액이 가장 큰 업체의 피해액은 3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남도장터는 위메프 본사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미정산금을 장터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상품구매와 정산금 지급 간 시차와 상품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기업이 가져가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사기와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후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라고 평가했다. 자본 잠식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당국과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e커머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미흡한 제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는 안중에도 없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경영진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전남도와 남도장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산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경영 윤리도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을 위해 소중한 남도장터의 운영 수익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감독 당국과 검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의 거짓과 불법 등을 명백히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이들의 사기 행각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하마 카운티의 172번 국도에서 소방관들이 '파크 파이어' 산불이 밀 크리크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하는 동안 야생 사슴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파크 파이어' 산불로 지금까지 약 1700㎏가 소실됐다. AP/뉴시스

서석대

한 종편채널에 방영되는 '백반기행'. 전국을 돌아다니며 푸근한 밥상과 함께 본 아저씨를 기억하는가? 반세기를 만화와 함께 한 한국 만화계의 거장 허영만 화백이다.

허영만의 만화세계를 집대성한 전남도립미술관의 기획 초대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가 최근 개막해 또 한 번 전시 흥행을 이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개관 이래 지역작가 작품세계를 조망하고자 한 전남도립미술관이 여수 출신 허영만 화백을 초대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종이 안의 세계로만 존재했던 2차원의 풍경들이 전시콘텐츠로 확장되는 서사가 꽤 흥미롭다.

허영만 작가는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만화계의 대가이다. 1974년 한국일보 신인 만화 공모전에 '집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만화가로 데뷔한 작가는, 같은 해 소년한국일보사에 연재한 만화 '각시탈'의 흥행으로 '허영만'이라는 이름 석 자를 세상에 알리고, 서유기를 재해석한 작품 '날아라 슈퍼보드'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만화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각시탈', '비트', '타짜', '식객' 등이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재제작되면서 허영만의 작품은 종이를 넘어 대중매체까지 문화영역을 확장했다.



"치키치키차카차카초초초초초" 80~90년대생이라면, 익숙한 멜로디가 전시장 안에 울려 퍼질 때, 추억에 잠겼다. 여러 명작 중에 '날아라 슈퍼보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세대별로 허영만의 작품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증거일 터이다. 허영만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는 KBS 1990년 첫 방송 이후 42.8%라는 경이적인 시청률(1992년 11월 기준)을 기록하면서 2002년 현재에도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시청률로 기록되고 있다. 허영만의 작품은 이처럼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으로 리메이크 되면서, 만화 매체의 확장성을 보여준 시조라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데뷔 5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떼고 남몰래 웹툰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해 보겠다는 것.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작업실로 향한다는 일흔이 넘은 노 화백의 도전에 존경심이 생긴다. 1970년대 초기작부터 2010년대 후반 '만화 일기'까지 원화와 드로잉, 취재 자료 등 2만여 점을 집대성한 그 시절의 향수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전시, 전남도립미술관으로 만화여행을 떠나보자.

도선인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